



신라불교설화연구-명칭연구 모티브를 중심으로-

저자 (Authors)	황패강
출처 (Source)	어문학 , 1975.10, 315-320(6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1975.10, 315-320(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2886
APA Style	황패강 (1975). 신라불교설화연구-명칭연구 모티브를 중심으로-. 어문학, 315-32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8 14: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佛教說話研究

——名稱緣起 모티브를 中心으로——

黃 涇 江

新羅의 佛敎說話 가운데, 事物의 本末始終을 다룬, 이른바 緣起(Nidāna)에 관한 것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名稱 緣起를 주안으로 한 일련의 說話들을 볼 수 있다.

어떤 사실로 말미암아 이름이 지어지고, 다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랜 옛날의 사실이 기념되는 유의 說話는 佛敎의 敎化口述物 가운데 적지 않다. 이를 「名稱緣起」라고 불러 보았다.

三國遺事에 나타난 寺名緣起說話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六堂은 同 解題에서 하나 하나 열거하고 간단히 언급한 일이 있었다.⁽¹⁾

이와같은 名稱緣起는 대개 佛陀 및 前世佛의 사적, 혹은 초기불교의 사실에 인연술 지었거나, 아니면 天竺이나 中國의 佛蹟에 은근히 比擬하여 형성된 경우가 많았다.

昔義湘大師 始自唐來還 聞大悲眞身住此海邊窟內 故因名洛山 蓋西域寶陀洛伽山 此云小白華 乃白衣大士眞身住處 故借此名之⁽²⁾

江原道 洛山은 西域의 寶陀洛伽山⁽³⁾에 附會하여 「洛山」으로 命名되었던 것이다. 특 같이 義湘과 관련을 가진 蔚珍의 佛影寺의 경우,

義湘法師…(中略)…登海雲峰 北望歎曰 西域天竺山形勢巖移於海表也…(中略)…以淨補之類曰 天竺山 佛影寺⁽⁴⁾

蔚珍의 天竺山이 西域 天竺山에 附會되고 있다.

江原道 五臺山은 中國의 五臺山에 比擬되고 있다.

始自慈藏法師 初法師欲見中國五臺山文殊眞身…(中略)…忽有一僧…(中略)…又曰 汝本國良方溟州界有五臺山 一萬文殊常住在彼 汝往見之⁽⁵⁾

(1) 崔南善, 新訂三國遺事, 民衆書館, 1958, 解題 pp. 37~9.

(2) 三國遺事 卷 3, 洛山二大總 觀音 正趣 禱儀

(3) 有陀落(Potalaka)山…(中略)…又新羅案 新羅礁也 此日本惠尋曾所棲也(西域圖 匯覽二校錄)

(4) 天竺山佛影寺記 (經寫本『蔚珍佛影寺奉願』佛影寺 藏)

五臺山이 一萬文殊眞身이 常住하는 聖地로서 崇拜된 걸에서는 中國과 우리나라가 같다.

寺刹의 緣起도 中國의 事實에 附屬하여 說話된 것을 볼 수 있다.

羅時 有道人葛揆和尚 始禱宇設法界而栖息焉 仲修居士亦以至誠…(中略)…觀音汲水之異井 照半座維之怪石 布在於其北 擇米松落足跡三臼之奇巖 列宛如東西…(中略)…恰似於中華曹溪漢揆居士之遺跡 此蓋晉東晉人慕華 軌而滿其跡歟 抑別有葛揆居士栖于斯 而留其痕歟 跡之眞僞無從可詳 而道人栖息之芳痕留 照於後人之秋波⁽⁵⁾

위의 摩骨山 東竺寺의 緣起에서 葛揆和尚의 事迹은 葛揆居士의 그것에 暗合하였는데, 記述者자신 거기에 참치하여 「중국을 숭상하는 생각에서 그 자취를 따르고 좇은것이 아닌가? (慕華 軌而滿其跡歟)」라고 꼬집고 있다. 이 밖에도 中國이나 天竺의 佛蹟을 憑藉한 名稱緣起가 佛敎說話로 형성되어 전승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다음은 某種의 功德에 因緣한 名稱緣起 說話의 예들이다.

舉例하던 아래와 같다.

- 第四十九憲康大王之代…(中略)…於是勅有司 爲龍朔佛寺近境 旣令已出 雲開霧散 因名開雲浦…(中略)…乃卜靈鷲山東麓勝地附寺曰望海寺⁽⁷⁾
- 忽見一人放鷹而逐雉 雉飛過金岳 杳無蹤迹 聞鈴尋之 到屈井縣官北井邊 鷹坐樹上 雉在井中 水渾血色 雉開兩翅 抱二雛鶩 鷹亦如相側隱而不敢攫也 公見之惻然有感…(中略)…創寺於其地 名靈鷲寺焉⁽⁸⁾
- 謬傳 嚴欣伯欣二人 捨家爲寺 因名曰伯嚴 仍爲護法神⁽⁹⁾
- 神曰 法師若欲見我形 平旦可臺東天之際 法師明日望之 有大臂貫雲 接於天際 其夜神亦來曰 法師見我臂耶 對曰 見曰甚奇絕異 因此俗號臂長山⁽¹⁰⁾
- 有群鷓鴣地 乃思海龍鵝卵之言 尋掘地 果有遺卵無數 聚而繼崇之 塔成而無遺磚 知是前代伽藍墟也 畢創寺而住焉 因名鷓鴣寺⁽¹¹⁾
- 憲空…(中略)…負篋歌舞於街巷 號負篋和尚 所居寺因名夫蓋寺 乃篋之鄉言也⁽¹²⁾

(5) 三國遺事 卷3, 靈山五萬眞身

(6) 朝鮮寺刹史料, 上, p. 556f. (東竺寺)

(7) 三國遺事 卷2, 處容郎 望海寺

(8) *Ibid.*, 卷3, 靈鷲寺

(9) *idem.*, 伯嚴寺石塔舍利

(10) *Ibid.*, 卷4, 圓光西學

(11) *idem.*, 寶壤裂木

(12) *idem.*, 二惠同塵

(13) *idem.*

(14) *idem.*, 元曉不羈

(15) *idem.*, 關東楓岳鉢淵菝石記

- 一日二公沿溪撥魚蝦而啖之 放便於石上 公指之戲曰 汝採吾魚 故因名吾魚寺⁽¹⁶⁾
- 其生緣之村名佛地 寺名初耶 自稱元曉者 蓋初拜佛日之意也 元曉亦是方言也 當時人皆以鄉言稱之始且也⁽¹⁷⁾
- 永深等奉教 直往俗離 尋吉祥草生處 創寺名曰吉祥⁽¹⁸⁾
- 初神王文發直背 請候於遙 適至 咒之立活 乃曰 陛下遠背爲宰官身 誤決感人信忠 爲非 信忠有怨 生生作報 今茲惡疽亦信忠所祟 宜爲忠創伽藍 奉冥祐以解之 王深然之 創寺號信忠奉聖寺 寺成 空中唱云 因王創寺 脫苦生天 怨口解矣⁽¹⁹⁾
- 僞笑答曰…(中略)…言訖 湧身凌空 向南而行 王驚愧 馳上京岡 向方遙札 使往尋之 到南山參星谷 或云 大破川源石上 置錫鉢而隱 使來復命 遂創釋迦寺於琵琶嶺 下創佛無事⁽²⁰⁾ 於滅影處 分置錫鉢焉⁽²¹⁾
- 虎變爲娘子 熙怡而笑曰…(中略)…乃取現所佩刀 自頸而仆 乃虎也…(中略)…現旣旣 創寺於西川邊 號虎顯寺 常講梵網經 以導虎之冥遊 亦報其殺身成己之恩⁽²²⁾
- 師之感老叟 因名文殊站 覓女處曰阿尼站⁽²³⁾
- 忠與二女相約 掛冠入南岳 再徵不就 落髮爲沙門 爲王創斷俗寺居焉⁽²⁴⁾
- 羅時有觀機·道成二聖師…(中略)…成於所居之後 高巖之上 常宴坐 一日自巖籬間透身而出 全身騰空而逝 莫知所至…(中略)…機亦繼踵歸真 今以二師名命其處 皆有遺趾 道成講高數丈 後人置寺穴下⁽²⁵⁾
- 寶際寺翠道如…(中略)…道真散之 如脂內 齋齋終還 王追使居遂遂寺 入門則意不知所在 使來安 王異之 追封國師 後亦不復現世 至今稱曰國師房⁽²⁶⁾
- 寺有異骨 不言名氏 常念彌陀 譯聞于城中…(中略)…皆以念佛師爲名…(中略)…其本生避羅寺 改名念佛寺⁽²⁷⁾
- 將彩石佛也 欲鍊一大石爲龕蓋 石忽三裂潰恚而毀 夜中天神來降 畢造而還 城方祝起 走賊南嶺蕪木 以供天神 故名其地爲香嶺⁽²⁸⁾
- 三曰…(中略)…今孫順埋兒 地湧石鍾 前孝後孝 費賊同鑑 乃賜屋一區 歲給銀五十頂 以尚純孝焉 順捨嘗居爲寺 號弘孝寺⁽²⁹⁾
- 貞德王賜錢五百石 并宅一廬 遣卒徙育其家 以嚴勸誘 旌其功爲孝義之且 後捨其家爲寺 名禹尊寺⁽³⁰⁾

(16) *idem*, 惠通降龍

(17) 新[sic. 寺]

(18) 三國史事 卷 5, 眞身受供

(19) *idem*, 全現感虎

(20) *idem*, 慈會進名 文殊站

(21) *idem*, 信忠掛冠

(22) *idem*, 包山二聖

(23) *idem*, 迦如師

(24) *idem*, 念佛師

(25) *idem*, 大城孝二世父母 神王文代

(26) *idem*, 孫順埋兒 興德王代

(27) *idem*, 貧女發母

- 一日 王與夫人欲 幸節于寺 至露華山下大池邊 彌勒三尊出現池中 留寫致敬 夫人謂王曰 須創大伽藍於此地 固所願也 王許之…(中略)…以神力一夜額山填池為平地乃法像彌勒三尊設塔廓廡各三所創之 額曰彌勒寺⁽²⁸⁾
- 獻陽縣有龍遊寺 枕鴨管遊北現異 故名之⁽²⁹⁾

이상은 대개가 본격적인 名稱緣起說話로 간주할 만한 것이다. 실제로 靈異적인 사건이나, 佛敎적인 前生壽 佛功德, ……등이 名稱緣起의 도리브가 되어있다. 각 寺刹에는 현재도 수많은 名稱緣起의 口承說話가 전해 오고 있다. 一例로 月精寺에는 羅僧 無染의 高弟였던 九鼎의 名稱說話가 흥미진진하게 寺家들 가운데 전해오고 있다.⁽³⁰⁾

寺誌類에는 의례히 寺刹과 寺名緣起를 說話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麗代人甄蓮韻卽者入此山 而有修鍊之蹟 神女子姓名金龍者生此土 而有神異之事 山與寺之得名良有以也⁽³¹⁾
- 新羅羅[si]德王時洪貞幽師瓶上覺魔 常宴坐示法之次 下指比基曰 對建刹于此 則雲、百、安三寺皆爲蜀庵⁽³²⁾

桃李寺의 緣起話에는 阿度의 行蹟이 소상하게 說話化되어 있다.

- 大和尚阿度禪師乃平壤人也…(中略)…受慈母命 遊歷山川 遠指東京 行過營州地 主于毛禮長者家 因留爲羅二 毛禮長者命以牧牛羊之役 日放於牛羊廣野而牧之…(中略)…高宿之處 放大光明 天地洞照 神光紫氣耀空充處 長者見之 大驚異之 乃山中選幽結禪庵 時時供給 一日長者見五色桃李陳於雪中 因號其所居庵 曰桃李

(28) *Ibid.*, 卷2, 武王

(29) *Ibid.*, 卷4, 慈藏定律

(30) 五臺山東臺의 觀音道場의 道人 無染이 130 里 떨어진 江陵강에 가서 포승(土氈)을 사가려고 들에 지고 大關嶺을 넘어 本處로 오고 있었다. 三伏 더위에 피곤했던지 그는 숲을 걷다 길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채마밭 이곳을 지나가던 威鏡道 北布장수가 날투한 옷차림의 老僧을 보고, 서있는 까닭을 물었다. 無染은 「이(點)이게 전신을 먹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北布장수는 달에 걸고 가운 짐바리에서 배 할필을 풀어 施호하였다. 그러나, 無染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거들떠가지도 않고 그냥 카버리는 것이었다. 北布장수는 이게 慇心하여 달도 절도 다 버린채 老僧을 따라 나섰다. 大關嶺을 넘고 橫溪를 지나 급기야 慈藏에까지 왔다. 다음날 無染은 그에게 전날 사온 숲을 절게 했다. 북부 장수는 자기만엔 정성껏 잘 걸었으나, 無染은 번번히 다시 걸기 했다. 그 때마다 북부장수는 걸었던 것을 풀어내고 더욱 정성을 들여서 잘 걸었다. 어떻게 하기를 아홉번 만에야 無染의 눈에 들었다. 한걸 먹은 숲을 풀릴 줄 몰랐던 북부장수는 慈藏 잘 주아서든 스님이 되었다. 숲을 아홉번 고쳐 걸었다는 뜻으로 九鼎禪師라고 불렀다. (朴天下, 71 歲, 月精寺僧, 1974 年 8 月 8 日, 採集)

(31) 金龍寺事蹟記(蔚鮮寺刹史料, 上, p. 448f.)

(32) 水川郡北西面銀海寺古蹟記(*Ibid.*, p. 466f.)

名之長者所居村亦曰 道起名之⁽³³⁾

阿度가 일찌기 毛禮家의 雇工이 되어 牧畜에 從事하며, 時運이 이르기를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다.

- 玉寶勤習西教 初度見性之時 巖內搖動 大王勅下云云 四隅各遣中使 斯速尋見來 現云云 中樞府金海郡金鑑迺到相逢 懇乞無數頂禮 心堅不動 聽而不聞 視而不見 吾寧持戒一日而死 不願破戒而生 棄野遁走 不知去處 烟雲迫絕 無可奈何 哭泣以歸 然後玉寶禪人更來此地 再三周覽 則靈虛福地 已破神功 可謂奇勝助道之地 幸爲大王大妃破除貪懼 錢財寶物無盡收納 泐建龜龍寺…(中略)…飛錫于智異山巖上院…(中略)…至母并七人同悟無生 故因號七佛寺⁽³⁴⁾

七佛寺 緣起를 보이는 위의 說話에서 玉寶禪人은 智異山 巖上院에서 50年 동안 琴法을 연구하여 新調 30曲을 製作하여 得에게 전한 新羅琴道の 鼻祖인 玉寶高⁽³⁵⁾를 가리킨 듯하다. 玉寶高의 新調 30曲⁽³⁶⁾은 佛敎的인 풍기에서 제작되었던 것이 아닌가? 원전하는 名稱에서 그런 시사를 만난다.

- 或說 古祖師靈源結草庵而駐錫 故名靈源也 又說 新羅景文王三年甲申…(中略)…名未詳智異山和尚 支支那傳臨濟禪師心印 而衣錦東還 泐溝少庵居之 而洞是靈源 故因以名庵也 上靈源禪師者 疑是此智異山和尚之稱號 而是爲第一開山也⁽³⁷⁾
- 靈井者 往在唐文宗之太和三年 卽新羅眞德王四年己酉也 有梵僧 自西而至 斂跡于此 鄉人目之 爲黃髮老禿云 有異人抱殘疾 就乞治教 梵僧指一流泉 使飲之 曰服此則有瘳矣 果如教卽感⁽³⁸⁾
- 新羅法興王時 中國使天竺國僧摩羅訶彌騎白象 得經法于海東…(中略)…因學佛東指白雲生於石山…(中略)…摩羅訶彌跣足往入白雲石山 法興王爲建大伽藍 封其山曰靈嶽 賜萬結 乃東方佛法寺刹之始也⁽³⁹⁾
- 威城之南 妙香之北 有一精舍 厥號獅盤臺 安名者誰 新羅道人元曉悟道於斯 樂道於斯 一日憇眼覆之 中原大作佛捨 九僧九俗者參經師 天罰地陷 緣此會衆咸沒之際 有一盤 自無何以來 或高或低 揭道場而去 會衆咸言奇怪而隨出 後地陷訖師被陷沒之禍 盤止視之 則盤中有海東元曉獅盤教衆人字 所以扁額也⁽⁴⁰⁾

(33) 桃李寺事蹟(乾隆 29年 甲申仲春 慶尙右道善山府地桃李寺別刊)

(34) 龜龍寺事蹟片浮屠移安碑銘序(寺刹史料, 上, p. 517)

(35) 三國史記 卷 32, 雜志 第 1, 樂

(36) 玉寶高所製三十曲 上院曲一 中院曲一 下院曲一 南海曲二 倚曲曲一 老人曲七 竹隨曲二 玄合曲一 春朝曲一 秋夕曲一 吾沙息曲一 鴛鴦曲一 遠站曲六 比日曲一 入我相曲一 幽谷清聲曲一 臨天聲曲一 克宋所製七曲 今亡 (id)

(37) 靈源庵(寺刹史料 上, p. 550)

(38) 靈山靈井寺古蹟(Ibid., p. 592)

(39) 靈嶽懸燈寺事蹟(Ibid., p. 33)

(40) 靈川郡妙香山獅盤臺寺蹟記(Ibid., 下, p. 162).

○ 新羅善德王八年甲申 眞義律師住于全州碧骨郡都川山大井村 十二歲出家 授于毋岳山 高完元年 詣保安縣八邊山 後北入紫雲山 至遼城南嶺之東 見海底石氣 曰此間必有道場長遠之地 因卜築于此 教以華嚴經 而寺前有蓮臺 故名爲禾鏡寺也⁽⁴¹⁾
眞經을 「黔丹洞의」라고도 부르는데 「禪師形貌點然 衆號黑頭陀是也」⁽⁴²⁾

트 보아 일곱빛이 검은대서 은 別號였다.

寺刹 또는 그것이 있는 山이나 洞壙의 名稱을 설명하는 說話들이 佛教 教化의 목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慈藏洞窟으로 전하는 月澄山의 心腹寺⁽⁴³⁾, 元曉·義湘·潤筆等 三聖의 結茅修道한 곳으로 전하는 三聖山⁽⁴⁴⁾, 義信이 天竺에서 白鬚歌經하여 來往했다는 法住寺⁽⁴⁵⁾, 元曉가 築庵하고 居處였다는 瑞石山의 元曉庵⁽⁴⁶⁾, 十六羅漢玉佛이 聳出했다는 聖出山(動樂山)⁽⁴⁷⁾, 騰蘭이 日照를 시켜서 填水堙鏡였다는 寶鏡寺⁽⁴⁸⁾, 道詵의 鳩林과 烟起寺⁽⁴⁹⁾, 仙人이 看基했다는 仙岩(寺)⁽⁵⁰⁾, 慧徹이 逐虻한 逐虻時⁽⁵¹⁾, 소가 누운 곳에 安經했다는 美黃寺⁽⁵²⁾……등 이런 유의 名稱緣起說話는 비교적 광범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名稱緣起說話는 단순히 名稱의 소이연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듣는 자마다 심상한 강산에서 깊은 佛性の 세계를 보게 하며, 발길 닿는 곳마다 佛性の 遍在함을 의식함으로써, 生類를 아끼고, 接人接物에 善緣을 짓게 하여 마침내는 厭離世間하고 回心 探眞케 하는데 그 制限이 있다 하겠다. (小尾)

(41) 禾鏡寺寺蹟(Ibid., p. 88)

(42) 芝蔴類說 卷 18, 禪門

(43) 長湍郡江北面月澄山心腹寺碑序文(寺料上, p. 62)

(44) 三聖山三幕寺寺蹟(Ibid., p. 63)

(45) 報恩郡俗離山大法住寺之來歷(Ibid., p. 127)

(46) 元曉庵重建記(Ibid., p. 187)

(47) 谷城郡道上面寺祥庵羅漢遺蹟重修記(Ibid., p. 236)

(48) 清河郡內延山寶鏡寺金堂塔記(Ibid., p. 367)

(49) 道詵國師實錄(Ibid., pp. 202, 207)

(50) 全南順天郡西溪山仙巖寺寺蹟(Ibid., p. 283)

(51) 東師列傳 卷 1, 慧徹國師傳

(52) 有明朝鮮國全羅道靈巖郡述曆山美黃寺事迹碑銘(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下, p. 203f.)